2026.04.06

[국내주식 마감 시황]

이재원 Market Analyst | jaewon2.lee@yuantakorea.com
김세빈 Research Assistant | sebin2.kim@yuantakorea.com

# 삼성전자 D-1

KOSPI 5,450pt(+1.4%), KOSDAQ 1,047pt(-1.5%)

## 해외 시황 — 고용지표 양호했으나 영향력 미미

- 미국 주식시장은 부활절 연휴 휴장. 이란 전쟁 새로운 업데이트 부재. 트럼프 한국시간 내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기한 하루 연장. 3월 미국 비농가고용 전월 대비 17.8만명 급증. 예상치(6.5만명) 대폭 상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만 없었다면, 금리 인하로 고용 안정 확대 및 물가 관리 성공 가능했다는 점(골디락스) 확인. 다만,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 여부에 시장 관심 달려 영향력 미미

## 수급 — 외국인 삼성전자 2거래일 연속 순매수

- 금융투자 중심 기관 순매수 지속되는 흐름. 업종은 내일 실적 발표하는 삼성전자 기대감에 전기전자(반도체 중심) 매수. 외국인 KOSPI 현물 1,597억원 순매도 했으나 전주 일평균 순매도액 대비 현저히 줄어든 양상

## 시황 — 삼성전자 기대감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 발표한 정부

- 금일 KOSPI, KOSDAQ 각각 +1.4%, -1.5% 등락. KOSPI, 삼성전자 필두로 2차전지, 전력기계, 정유, 화학 등 지수 상승 견인. 단 대형주 일부 상승기여도 높아 상승종목 대비 하락종목 수 많았던 압축 장세. 삼성전자, 외국인 3월 18일 이후 최대 순매수(2천 4백억원) 하며 기대감 반영. 영업이익 50조원 이상 추정한 리포트 다수 발간. 기후부, 금일 국무회의서 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발표.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대폭 확대(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배 수준 증가). 신차 판매량 40%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 반도체 제외 상승 업종들 상승 배경. 지정학적 갈등 휴전 연장 장중 보도됐으나 결국 확실한 결론(휴전? 종전?)이 중요

## 특징업종 — 지정학적 갈등이, 정부가, AI 데이터센터가 함께 밀고 있는 업종들

- 1) 2차전지: 신재생과 함께 정부가 확실하게 밀겠다는 전기차 확대. 이번 유가 장기화 모멘텀서 전기차 판매량 증가도 기대. ESS 투자도 전력기기와 비슷한 구조적 성장 기대감(삼성SDI +3.4%, LG ES +3.5%) 2) 전력기기: LS일렉트릭, 미국 데이터센터향 변압기 수주. 미국 전력망 교체에 8,700조 투자 필요 전망. 위에 언급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전력망 필요. 지정학적 갈등이 기름 부은 K전력기기 구조적 성장 기대(LS일렉트릭 +3.9%, 일진전기 +7%)

## 이벤트 —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 그 다음 지정학적 이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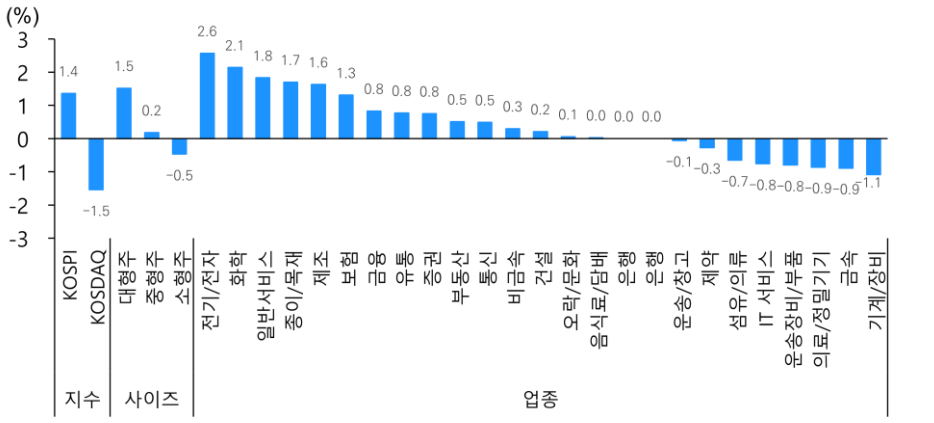
- 트럼프, 해협 재개방 기한 한국시간 내일 오전 9시에서 모레로 변경.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단기 모멘텀 집중 전망
  1) 삼성전자 잠정실적 (7일 장전) 2) LG전자 잠정실적(7일)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 (단위: 억원) | KOSPI | KOSDAQ |
|---|---|---|
| 기관 | 5450.33pt | 1047.37pt |
| 외국인 | (1.36%) | (-1.54%) |
| 개인 | 353개 | 562개 |
| 거래대금 | 512개 | 1100개 |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